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년 가을 학술대회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 ◆ 일시 : 2019년 10월 26일 (토), 14:00~19:30
-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 B106호
- ◆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년 가을 학술대회

[세부일정]

- ▶ 일시 : 2019년 10월 26일 (토), 14:00~19:30
-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 B106호

제1부 학술대회 |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14:00-17:5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4:10~14:20	휴 식	
14:20~15:10	학술강연	ser-M과 SD기반 연구를 통한 융합연구의 제시 • 발표 : 엄재근 (새공공협력원)
15:10~15:20	휴 식	
15:20~15:50	주제발표 1	노인복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고찰 • 발표 : 박범기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순덕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외 5인 • 토론 : 박지선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 사회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5:50~16:00	휴 식	
16:00~16:30	주제발표 2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발표 : 김영수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평생교육원) 외 4인 • 토론 : 이미혜 (서울대 기초교육원) • 사회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6:30~16:40	휴 식	
16:40~17:10	주제발표 3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 발표 : 박보영 (극동대) • 토론 : 강미희 (백석예술대) • 사회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17:10~17:20	휴 식	
17:20~17:5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이소영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7:50-18:40]

• 진행 : 박보영 (한국사회적질학회 연구윤리위원장 겸 편집위원장)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2018 인용지수> 안내

제3부 총회 [18:40-19:30]

• 의장 : 이소영(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사회 : 박보영(한국사회적질학회 이사)

1. 성원보고_ 이사 박보영
2. 제3차 총회 개회선언_ 학회장 이소영
3. 의장 인사말_ 학회장 이소영
4. 학회활동 보고_ 이사 박범기
5. 안건 심의 및 의결_ 학회장 이소영 / 이사 박범기
 - 제1호 안건 : 2019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 제2호 안건 : 임원변경 보고 및 승인
 - 제3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 학회장 이소영
7. 폐회선언_ 학회장 이소영

* 총회 완료 후 만찬

[목 차]

2019년 가을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제1부 학술대회 |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 학술강연

ser-M과 SD기반 연구를 통한 융합연구의 제시 7

▶ 연사 : 엄재근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 주제발표 1

노인복지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17

▶ 발표 : 박범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이순덕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외 5인

▶ 토론 : 박지선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 주제발표 2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

▶ 발표 : 김영수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외 4인

▶ 토론 : 이미혜 (서울대 기초교육원)

□ 주제발표 3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47

▶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 토론 : 강미희 (백석예술대학교)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57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60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2018 인용지수> 안내 62

제1부 학술대회

학술강연

Ser-M과 SD기반 연구를 통한 융합연구의 제시

엄재근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학술위원장 / 한국사회적질학회 부회장)

ser-M과 SD기반 연구를 통한 융합연구의 제시

엄재근

(새공공협력원 학술위원장 / 한국사회적질학회 부회장)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ser-M과 SD 기반 연구를 통한 융합 연구의 제시	
2019. Oct. 26 th 발표자: 엄 재 근	
1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ser-M 의 이해를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산업의 중심점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 가는 과정을 ser-M, 즉 주제, 환경, 자원 그리고 메커니즘으로 설명(조동성,1995)▶ 최근 주제, 환경, 자원요인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동태적 경쟁우위 확보의 전략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관점의 연구가 진행(구자원, 이윤철, 2007; 조동성, 정진섭, 2004; 조동성, 이윤철, 박재찬, 2001)▶ 기존의 통합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국제화를 설명하는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있거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이론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실증연구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주제, 환경, 자원 요인과 메커니즘 요인을 통합적인 시각에 설명(구자원, 이윤철, 2009)▶ 기업의 채용메커니즘에 대한 미시적 사례연구(이재영, 엄재근, 2016)▶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9개 기업의 사례를 분석(엄재근, 조규연, 탁진규, 2017)▶ 조선 태종의 리더십과 경영전략을 ser-M으로 분석(여현철, 엄재근, 2018)▶ ser-M을 이용한 국제통상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 연구(홍성식, 엄재근, 2018)▶ 글로벌 반도체장비 기업들의 리스크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사례연구(권영희, 엄재근, 2018)▶ ser-M Framework를 이용한 크루즈 기업 경영의 메커니즘(윤여현, 엄재근, 2019)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ser-M 기반 메커니즘의 접근

참조: 조동성, 2014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이해를 위해



“산업동태론은 산업시스템들의 행태를 연구하는 방식으로서, 정책과 의사결정과 구조 그리고 시간지연 등이 어떻게 상호연결되어 시스템의 성장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산업동태론은 시스템에 동태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정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Forrester 1961, 서문)

- Jay Forrester는 공학자로서 15년간 MIT에서 공군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음.
- 1956년 MIT Sloan School에 합류. General Electric의 켄터키 가전공장의 불안정한 가동률에 대해서 처음으로 종이에 연필로 시뮬레이션 수행.
- 1958년 Harvard Business Review에 “Industrial Dynamics- A Major Breakthrough for Decision Makers” 라는 논문 발표. 이때 Dick Bennett가 Dynamo의 전신인 SIMPLE(Simulation of Industrial Management Problems with Lots of Equations)을 만들. 이후 Jack Pugh가 DYNAMO를 만들.
- 1968년 보스톤시의 전 시장 John F. Collins가 Forrester 연구실 옆 방에 오게 되어, 토론을 벌이면서 결국 Urban Dynamics로 발전함. Urban Dynamics는 많은 토론을 불러왔으며, 흑인들의 적개심을 사기도 하였음. 그러나 Urban Dynamics로 인하여 World Dynamics나 Limits to Growth, National Model등에 관한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으며, System Dynamics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음.



시스템다이내믹스_김도훈,문태훈,김동환 저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시스템 사고의 기본요소들간의 상호관계

동태적 사고 (dynamic thinking)
시스템 사고 (Systems Thinking)
피드백 사고 (feedback thinking)
사실적 사고 (operational thinking)

시스템다이나믹스 접근에서의 시스템과 환경

패쇄적 시스템 관점 개방적 시스템 관점 시스템 다이나믹스 관점

피드백 루프의 원형에 사용될 아이콘

음의 피드백루프 음의 피드백루프 + 시간지연 양의 피드백루프 시스템 전체의 전형적 형태

시스템다이나믹스_김도훈,문태훈,김동환 저

은행파산에 대한 자기에연적 실현

현실세계 은행의 지불능력에 대한 인식 인식세계 은행파산에 대한 두려움

은행의 지불능력 은행에 공익의 영향 은행의 영종전고

실제의 세계와 단선적 사고의 격차

실제의 세계 시간지연 피드백 비선형

단선적 사고 즉각적 효과 일방향 선형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은 헬조선입니까?

여러분들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헬조선에서 흙수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HOW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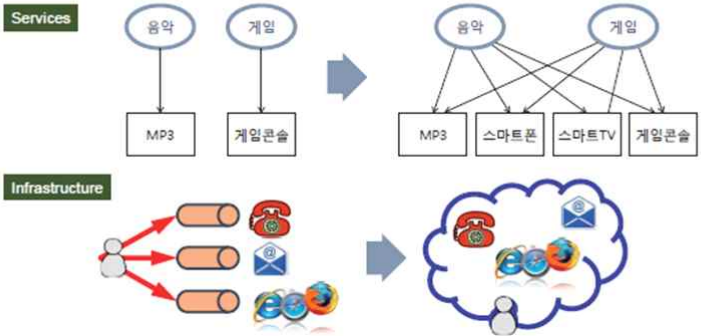
1번 : 성공할 수 있다는 내 의지가 중요하다
2번 :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3번 : 성공할 수 있는 자본이나 기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경영학에서 복잡계 배경(driver) : Convergence



핵심은 융합
무엇이(ser-M)
어떻게(System Dynamics)
성과를 만드는가?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창조형 메커니즘(SER/SRE)
주체가 선도적으로 환경과 자원을 창조하는 mechanism

기존의 주어진 것과 무관하게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무에서 유의 창조.
즉, 기존의 것을 새로이 만든다는 의미의 혁신과는 다름

혁신형 메커니즘(RSE/ESR)
주어진 환경이나 자원의 기반 위에 주체가 자원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제한적 mechanism

무에서 유의 창출이 창조형 mechanism 에 해당한다면 과거에서 미래으로의 쇄신이 제한적 혁신형 mechanism에 해당

적응형 메커니즘(ERS/RES)
주어진 환경과 자원의 기반 위에 주체가 수동적으로 상황에 맞추는 mechanism

창조형 mechanism이 무에서 유를 창조, 혁신형 mechanism이 구에서 신으로의 혁신이라면 적응형 mechanism은 구의 유지 및 활용을 의미.
혁신형 mechanism은 기존의 환경이나 자원을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 시키는 반면 적응형 mechanism은 자원이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한다.

참조: 조동성, 2014

2019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시스템사고의 이해를 위해







2019년 추계학술대회

시스템사고의 이해를 위해

포식자-피식자-초목의 인과지도

The diagram shows a complex causal map with nodes for '초목의 생장률' (grass growth rate), '초목의 양' (amount of grass), '피식자 1인당 초목소모량' (grass consumption per prey), '피식자 사망률' (prey mortality rate), '포식자 1인당 초목량' (grass amount per predator), '포식자 생장률' (predator growth rate), and '포식자 사망률' (predator mortality rate). It includes feedback loops with positive (+) and negative (-) signs.

The graph shows a sharp increase in rabbit population starting around 1906, peaking at 100,000 in 1924, and then declining. A vertical line marks the year 1906 as the start of the 'Great Depression' (Great Depression).

- 포식자 제거, 피식자 번성 증동
- 1907년 미국 실제 발생
 - Roberts 외 1983
 - 그랜드캐년 국립물 보호지구를 선포
 - 사슴사냥은 금지, 사자사냥은 권장
 - 1906~1931년 800여 마리의 사자 포획
 - 사슴은 1906년 4,000 → 1924년 100,000
 - 1년 만에 사슴의 60%가 사망, 10,000에서 안정

시스템다이내믹스_김도훈,문태훈,김동환 저

2019년 추계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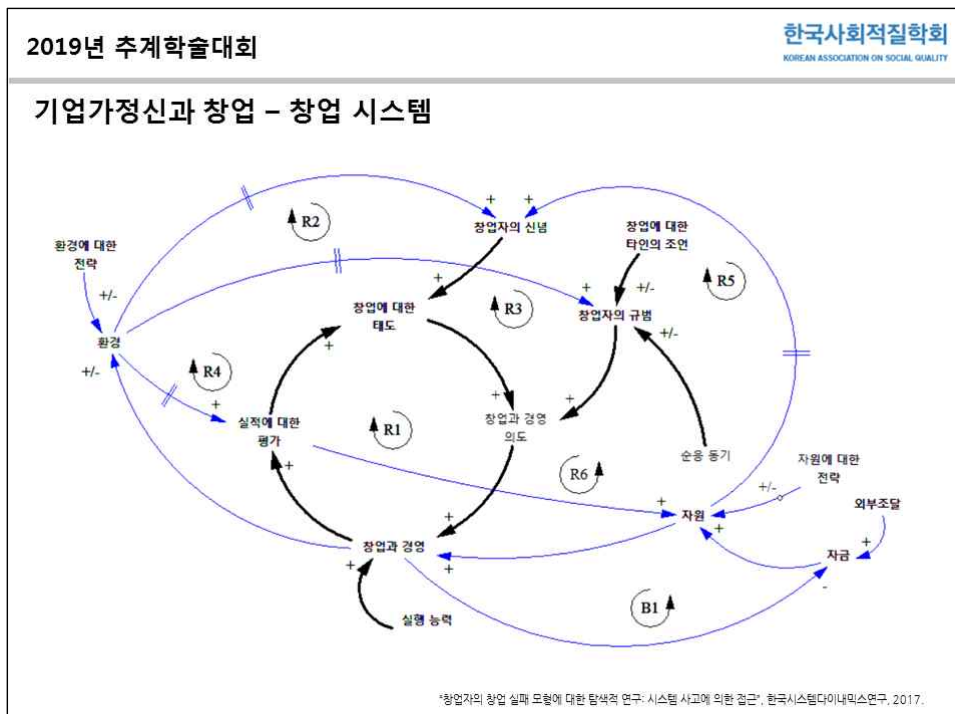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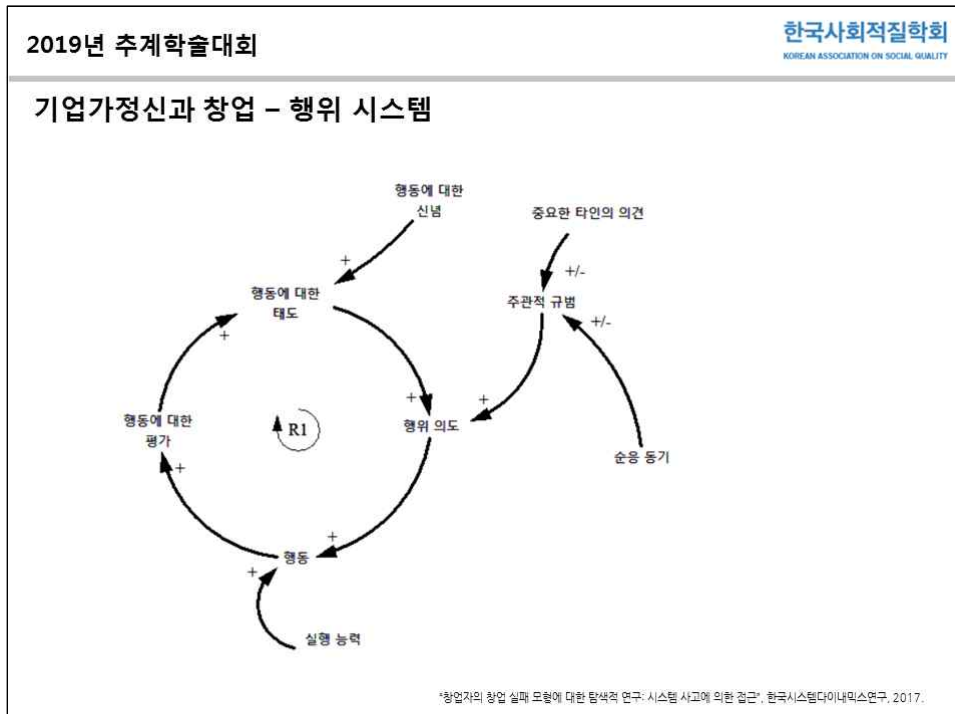
성장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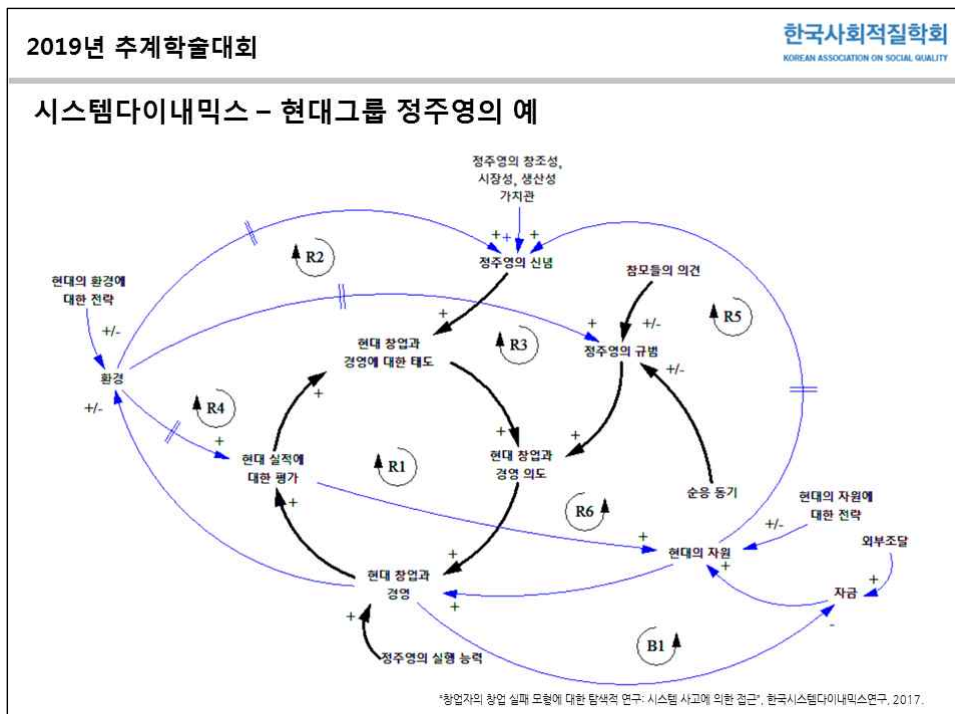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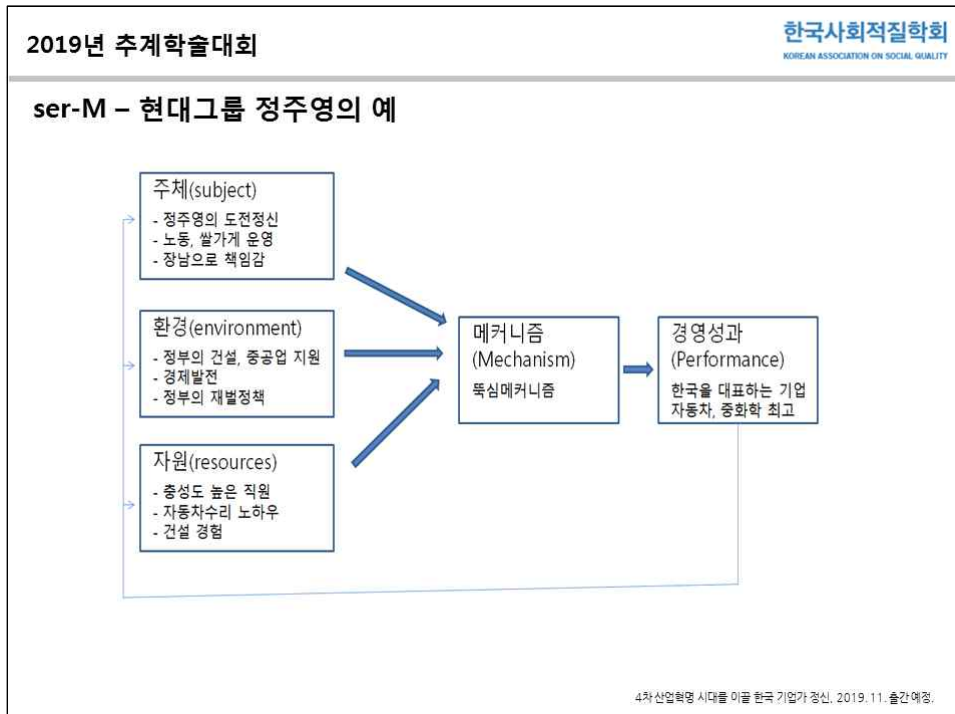
The diagram illu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성장 행위' (growth behavior), '실제 상태' (actual state), and '억제 행위' (inhibition behavior). It includes a graph showing a curve that levels off, representing a limit to growth. A box labeled '제약조건' (constraint condition) points to the inhibition behavior.

A circular flow diagram with three nodes: '매출' (sales), '투자' (investment), and '비용' (expenses). Arrows indicate the flow between them, with '+' and '-' signs.

성장 행위에는 항상 억제 행위가 존재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려보자





제1부 학술대회

논문발표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주제발표 1]

노인복지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 박범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이순덕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외 5인

[주제발표 2]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김영수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외 4인

[주제발표 3]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 박보영 (극동대학교)

노인복지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박범기

이순덕

외 5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수료)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 가을학술대회 발표

노인복지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 박범기 (주저자/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수료)
- 이순덕 (교신저자/평택 꿈터지역아동센터 센터장)
- 강은희 (호호발달연구소 소장)
- 서경원 (사회보장정보원 행정5급)
- 이송희 (용인시 풍덕천2동 주민센터 팀장)
- 맹상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강수연 (강남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I. 들어가며

1. 노인복지법이 97년 제정, 그 후 20년간 부분적으로만 개정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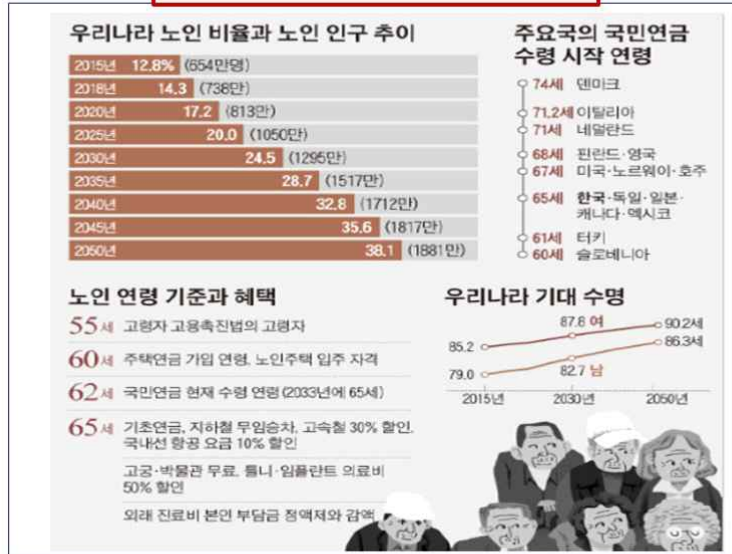
↓

요보호 대상에 관련되는 보호조치나 시설에 관한 역할만 수행함: 즉 동법은 너무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함
2. 그러나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을 배경으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들(커뮤니티 케어), 노인의 경제활동, 노인여가등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는 형편임

↓

그리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근간으로 출발했던 동법이 실제 노인복지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할 상황에 직면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과 노인인구 현황



출처: 이도희(2019).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3), 429-440.

한국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시기	내용
2018년 3월 13일	일부개정
2018년 1월 25일	일부개정
2017년 9월 15일	일부개정
2017년 6월 3일	일부개정
2016년 12월 30일	일부개정
2016년 6월 30일	일부개정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1998년 7월 1일	전부개정
1998년 5월 23일	전부개정
1997년 10월2일	노인의 날 지정
....	
1989년 12월 30일	전부개정
1981년 6월5일 제정	'노인복지법(법률 제3453호)' 제정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법률제219호)' 제정

출처: 이도희(2019).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3), 429-440.

II.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1. 노인기본법 제정(81년)

<p>노인복지법 ([시행 1981.6.5] [법률 제3453호, 1981.6.5., 제정])</p>	<p>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p> <p>제2조 (기본이념)</p> <p>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p>	

- 81년 동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20 여차례의 개정이 있었음, 서론에서 이야기한대로 전체시스템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보호대상과 관련된 조치나 관련 시설 정도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첨부하는 정도의 수준임.
- 노인복지법의 개정이유에 대해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재·개정이유**

[전문개정]

로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로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로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로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이상의 로인에 대하여 로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로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버양로시설, 유료로인요양시설 및 로인복지주택을 추가함.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8호

***재·개정이유**

[전문개정]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등 만성퇴행성 로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로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민연금 실시되어도 년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로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로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로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로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등을 통하여 로인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9호

<p>◇개정이유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4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의 예방·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5 신설). 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법 제39조의6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특성·상해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의10).</p>	<p>노인복지법 법률 제7152호 일부개정 2004. 01. 29.</p>
<p>•재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p>	<p>노인복지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p>

<p>•재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질환자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함에 따라 법률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치매로 인한 실종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p>	<p>노인복지법 법률 제11854호 일부개정 2013. 06. 04.</p>
<p>•재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지·휴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노인 학대행위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노인복지법 법률 제15442호 일부개정 2018. 03. 13.</p>

• **제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법**

법률 제16403호 일부개정 2019. 04. 30.

III. 노인복지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선방향

1. 노인복지법의 20 여차레에 달하는 개정이유의 대부분이 요 보호대상에 대한 단순한 보호조치나 관련 시설조항에 대한 것임. 그러나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돌봄, 요양, 노인복지 같은 전체 시스템적 관점에서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짐.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다뤘던 요양, 연금, 치매 같은 내용은 기초연금법(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년), 치매관리법(11년)으로 내용이 넘어갔음.



이런 상황에서 노인복지법은 돌봄, 요양을 포괄하면서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해야 함.

2. 노인법의 개정이유의 이면을 살펴보면 노인이 수동적인 존재이고, 정부에 의해 단순히 돌봄을 당하는 객체로 보여짐



그러나 인권적 관점에서 노인복지를 권리로, 노인을 보호대상에서 참여주체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 2조에서 노인의 경제권, 사회권, 건강권등을 명시되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권이 노인인권으로 실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출처: 구글이미지



출처: 구글이미지

IV. 나가며: 노인복지 기본법으로의 위상을 바라며

1. 변화된 노인의 복지요구 및 수요, 최근의 정책 동향을 반영한 전면 개정으로 체계적인 정책추진의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함.

2. 각 영역별로 국가, 지자체의 정책수립, 집행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사업 또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출처: 대한노인신문



출처: 복지타임즈

참고 문헌

- 강동욱(2019).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 22(2), 209-248.
- 김남용(2018).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관.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77-81.
- 이현민(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방향 논의. 후견과 신탁, 1(1), 245-259.
- 이도희(2019).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3), 429-440.
- 장봉석(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이후 노인복지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32, 405-429.

[토론문]

「노인복지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

박지선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실장)

1.

요즘 복지의 화두 중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이다. 지역사회가 복지의 대상자들을 수용해 교육, 의료, 보건, 교통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 듯싶다. 특히 그 커뮤니티 케어에서 혜택을 받는 복지의 대상이 주로 노인이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지하철 무료 탑승, 장기요양 시설 및 치매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노인들이 장기요양시설과 치매시설 및 커뮤니티에서 혜택을 받는 서비스 등은 그 근거법률이 존재해야만 한다. 관련 법률들은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되지만 그 개별법의 모범이 되는 법률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제한 ‘노인복지법’이다.

2.

발제에서 논했듯이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20여 차례 개정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입법화 된 처음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흘러온 것이 사실이다. 흘러가는 시대 흐름의 전체 시스템적 관점에서 조망하지 않고 단순히 법의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 기관에 대한 조치 등이 개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시대와 사회는 발제의 서론에서 이야기한 돌봄, 요양, 복지에 대한 큰 틀이 재구성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 지역적인 것에만 동법이 천착하고 있어서 당연히 문제제기 되어야 한다고 본 토론자도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발제의 함의는 상당하다고 본다.

3.

그러나 발제의 제목이 “노인복지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로 다소 거시적이라 개선에 대해 다루지 않은 부분도 보이는 것 같다. 가령 변화된 노인의 복지욕구 및 수요, 최근의 정책 동향을 다루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논의이다. 노인복지관이 현재 여가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흐름상 노인들의 사회활동이나 돌봄까지 포괄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쟁점들을 다루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정도 문제제기와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영수* · 김수연** · 류원섭*** · 박수은**** · 김기진*****

I. 서론

장애인 복지가 나아가는 방향이 이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하면서 <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싶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 < “응답하라, 서울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싶다> 등과 같은 여러 기사들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조명하고 있다(정병오, 2010; 노컷뉴스, 2016; 웰페어뉴스, 2014).

또한 탈시설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계획 이행 촉구를 위한 탈시설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출범하기도 하였으며,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김미옥, 정민아, 2018).

패러다임이 자립생활로 전환된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게 하면서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하고 소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도 취업을 하여 직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병오, 2010).

하지만 장애인의 취업실태는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5%로 15~64세의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69.9%와 비교하였을 때 약 17%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용률도 장애인은 49.0%로 전체인구의 고용률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 주저자 겸 교신저자. mythkys@naver.com

**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 해뜨는집

*** 강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강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 이사장

67%와 비교하였을때 약 18%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업률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실업률은 6.8%로 전체인구의 실업률 4.2%와 비교하여 약 2.6%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정부도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하여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으로 일자리를 다루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근거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민의 권리라고 밝히고 있으며 1인당 GDP 3만불 이상의 국가에서 평균 고용률은 72%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의 고용률은 49.0%로 GDP 3만불 이상 국가의 평균 고용률 72%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장애인의 삶의 전반적인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장애인 정부정책 방향인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취업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 역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8년 5월 기준 15~64세 장애인 인구(1,312,159명)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5%(689,308명)이며 고용률은 49.0%(642,738명), 실업률은 6.8%(46,570명)으로 15~64세 전체인구(36,793,000명)의 경제활동참가율 69.9%, 고용률 67.0%, 실업률 4.2%와 비교하여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인구와 비교하여 약 20%가 차이나고 실업률은 장애인이 2.6%가 더 높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장애인이 약 17%정도 낮다.

두 번째, 성별에 있어서도 2018년 15세 이상 장애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7.1%, 고용률 44.1%, 실업률 6.3%인 것에 비해 15세 이상 전체 인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5%, 고용률 71.4%, 실업률 4.2%이며, 15세 이상 장애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3.1%, 고용률 21.4%, 실업률 7.4%인 것에 비교하여 15세 이상 전체 인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6%, 고용률은 51.6%,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령별에 있어서 2018년 5월 기준 15~29세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3.9%, 고용률은 29.7%, 실업률은 12.3%로 15~29세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7.7%, 고용률 42.7%, 실업률 10.5%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30~39세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7.7%, 고용률 53.0%, 실업률 8.2%와 30~39세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78.9%, 고용률 76.0%, 실업률 3.7%와 비교하여 볼 때 30~39세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40~49세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60.1%, 고용률 56.3%, 실업률 6.4%와 전체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81.1%, 고용률 79.2%, 실업률 2.4%와 비교하여 볼때도 장애인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고, 50~59세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56.1%, 고용률 52.9%, 실업률 5.7%와 전체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77.7%, 고용률 75.7%, 실업률 2.6%와 비교하여 50대 장애인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고, 60세 이상의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도 24.5%, 고용률 22.9%, 실업률 6.5%로 전체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42.7%, 고용률 41.7%, 실업률 2.4%와 비교하여 장애인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네 번째로 장애정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알아보면, 2018년 5월 기준 경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43.9%, 고용률은 41.1%, 실업률은 6.2%이지만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이 22.1%, 고용률이 20.2%, 실업률이 8.4%로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경증장애인의 수준에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로 학력에 있어서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졸 이하' (58.6%)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9%이며, 고용률은 24.0%, 실업률은 7.0%이다. 전체 인구 중 '중졸 이하' 의 비중은 24.7%으로 장애인의 절반정도수준이며, 경제활동참가율도 39.6%, 고용률도 38.6%, 실업률 2.6%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더 불안정하며, '고졸' 의 경우 장애인 비중은 28.6%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0.1%, 고용률은 46.5%, 실업률은 7.1%이며, 전체 인구 중 '고졸' 의 비중은 37.5%로 경제활동참가율 64.9%, 고용률 62.2%, 실업률 4.2%로 고졸 장애인과 비교하여 볼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불안정하다. 그리고 '대졸 이상' 의 경우 장애인의 비중은 12.8%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58.7%, 고용률은 55.7%, 실업률은 5.1%로 전체 인구 '대졸 이상' (37.8%)의 경제활동참가율 78.5%, 고용률 75.3%, 실업률 4.2%보다 불안정하지만 장애인의 '중졸 이하' , '고졸' 와 비교해서 경제활동참가율 '중졸 이하' 25.9%, '고졸' 50.1%, '대졸 이상' 58.7%로 '대졸 이상' 이 가장 양호하며, 고용률 '중졸 이하' 24.0%, '고졸' 46.5%, '대졸 이상' 55.7%로 '대졸 이상' 이 가장 높다.

2.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양정빈(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빈곤문제라고 제시하였고 근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놓여있다고 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장애인 경제활

동참가율 38.3%, 고용률 36.0%, 실업률 5.9%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2.3%, 고용률 60.4%, 실업률 3.0%와 비교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불안정하며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절반수준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517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으며, 감각장애의 경우가 신체장애보다 취업가능성이 낮으며, 장애정도가 경증인 경우 중증인 경우보다 취업가능성이 높으며, 장애기간이 길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박주영(2018)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문제에서도 특히 취약한 계층을 청년 장애인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인구 고용률 63.6%와 비교하여 장애인의 고용률은 38.7%로 낮으며, 청년 장애인층도 전체인구 청년층 고용률이 43.4%인 것에 비교하여 고용률 28.7%로 낮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그리고 15~34세의 여성장애인 406명과 남성장애인 81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우 학력,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직접 구직문의 경험,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족의 취업지지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 학력, 자격증,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결혼상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족의 취업지지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아, 나운환, 김지민(2013)에 따르면 직업은 소득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아발전과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6,989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 혼인상태, 수급여부, 지역, 일상생활능력 도움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 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환이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오(2010)에 따르면 취업은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장애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며 경제적 자립의 기회제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선천적·후천적으로 취업기회가 제한적이다. 더욱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장애인복지의 방향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18~65세의 여성장애인 1,5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 가구주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장애정도, 장애유형, 일상생활 도움정도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취업관련 요인, 정신적 건강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사회활동참여, 차별경험을 변수로 채택하였다. 취업관련요인은 학력, 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민간취업서비스,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을, 정신적 건강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인지, 일상생활 만족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정신적 건강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인지, 일상생활 만족도를 변수로 채택하였고, 장애 및 건강요인으로는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 운동여부, 규칙적인 식사여부, 음주여부, 흡연여부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선정한 독립변수들에 따른 장애인의 취업여부의 차이 및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제공하는 2016년 2차 웨이브 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만 15~64세 등록장애인 4,577명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일상생활, 소득/소지 등의 내용에 대해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2016년 8차 조사까지 진행한 후에 패널 이탈, 연령의 자연 증가 등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2016년부터 2차 웨이브 조사가 새로이 시작되었고 본 연구는 2차 웨이브의 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 웨이브는 전국 17개 시도의 3,391개 읍면동, 6개 장애유형, 중증/경증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 4,577명을 표본 추출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2016년부터 실시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원자료에 있는 변수를 활용하여 독립변수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취업관련 요인, 정신적 건강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으로 구성하고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인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1>에서 설명하였다.

1) 종속변수 : 취업여부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에서 취업여부라는 문항의 응답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취업여부를 측정하였다. '미취업' 을 0으로, '취업' 를 1로 하여 측정된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

본 연구는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사회활동참여, 차별경험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성별은 여자를 0으로 남자를 1로 더미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연령은 15세 이상~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활용하였고, 배우자 유무는 미혼, 이혼, 별거, 사별하여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결혼/동거하여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1로 이원화하여 활용하였으며, 사회활동참여와 차별경험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사회활동참여 여부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참여하지 못 한다' 를 1로 하고, '많이 참여 한다' 를 4로 하여 4점 척도로 측정된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차별경험은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장애로 인한 차별을 어느 정도나 경험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경험한 적이 없다' 를 1로 하고, '항상 경험하였다' 를 4로 적용하여 4점 척도로 측정된 원자료를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취업관련 요인

본 연구는 취업관련요인은 학력, 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민간취업서비스,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을 변수로 채택하여 측정하였다. 학력은 '고졸이하' 와 '대졸이상' 으로 이원화하여 사용하였고, 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민간취업서비스 경험,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은 '없다' 와 '있다' 로 이원화하여 사용하였다.

4) 정신적 건강요인

정신적 건강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인지, 일상생활 만족도를 변수로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행복감, 일상생활 만족도는 5단위 척도를 활용하여 사용하였고, 우울감 인지는 '없다' 와 '있다' 로 이원화하여 사용하였다.

5) 장애 및 건강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으로는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 운동여부, 규칙적인 식사여부, 음주여부, 흡연여부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요즘 건강상태

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 까지 5단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규칙적인 식사여부 변수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편입니까?' 에 대한 응답을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를 1로, '가끔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를 2로, '일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 를 3으로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운동여부 변수는 '하지 않는다' 를 0으로 '한다' 를 1로 더미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음주여부와 흡연여부도 '하지 않는다' 를 0으로하고 '한다' 1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도움제공자 유무는 '현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 대한 응답을 '없다' 를 0, '있다' 를 1로 이원화하여 사용하였다.

〈표 1〉 변수의 설명

변수	요인	측정도구	설명		
종속 변수	취업여부		① 미취업		
			① 취업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15세 이상~30세 미만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⑤ 60세 이상		
		배우자 유무	① 없다 ① 있다		
	독립 변수	사회활동참여		①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②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참여하는 편이다 ④ 많이 참여한다	
			차별경험		① 경험한 적이 없다 ② 드물게 경험하였다 ③ 종종 경험하였다 ④ 항상 경험하였다
				학력	
	자격증				① 없다 ① 있다
		취업관련요인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① 없다 ① 있다	
	민간취업서비스 경험		① 없다 ① 있다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① 없다 ① 있다		
정신적 건강요인	스트레스 인지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② 느끼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느끼는 편이다 ⑤ 매우 많이 느낀다		

장애 및 건강 요인	주관적 행복감	① 매우 불행하다 ② 불행하다 ③ 보통이다 ④ 행복하다 ⑤ 매우 행복하다
	우울감 인지	① 없다 ② 있다
	일상생활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장애정도	① 경증 ② 중증
	주관적 건강상태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	① 없다 ② 있다
	운동여부	① 하지 않는다 ② 한다
	규칙적인 식사여부	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② 가끔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③ 일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
	음주여부	① 마시지 않는다 ② 마신다
	흡연여부	① 피우지 않는다 ② 피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시행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취업여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5를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표 2>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취업관련 요인, 정신적 건강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사회활동참여, 차별경험을 연구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인 성별은 ① 남성 은 3012명(65.8%), ② 여성 은 1565명(34.2%)이며, 두 번째 연령은 ① 15세 이상~30세 미만 가 805명(17.6%)이며,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은 1105명(24.1%)이며,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은 1329명(29.0%)이며,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은 880명(19.2%)이며, ⑤ 60세 이상 은 458명(10.0%)이고, 세 번째 배우자 유무는 ① 없다 이 2527명(55.2%), ② 있다 가 2050명(44.8%)이며, 네 번째 사회활동참여는 ① 전혀 참여하지 못 한다 가 756명(17.2%), ②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가 1588명(36.1%), ③ 참여하는 편이다 가 1869명(42.5%), ④ 많이 참여한다 가 187명(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섯 번째 차별경험에서는 ① 경험한 적이 없다 가 1526명(35.6%), ② 드물게 경험하였다 가 1679명(39.1%), ③ 종종 경험하였다 가 894명(20.8%), ④ 항상 경험하였다 가 192명(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인 취업관련 요인에서 학력, 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민간취업서비스 경험,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첫 번째 학력에서는 ① 고졸이하 가 3429명(74.9%), ② 대졸이상 가 1148명(25.1%)이며, 두 번째 자격증에서는 ① 없다 가 3280명(71.7%), ② 있다 가 1297명(28.3%)이며, 세 번째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에서는 ① 없다 가 4182명(91.4%), ② 있다 가 395명(8.6%)이며, 네 번째 민간취업서비스 경험에서는 ① 없다 가 4399명(96.1%), ② 있다 가 168명(3.7%)이며, 다섯 번째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에서는 ① 없다 가 3866명(84.7%), ② 있다 가 699명(15.3%)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인 정신적 건강요인에서는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인지, 일상생활 만족도를 다루고 있으며, 첫 번째 스트레스 인지에서는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가 77명(1.7%), ② 느끼지 않는 편이다 가 449명(10.1%), ③ 보통이다 가 1339명(30.0%), ④ 느끼는 편이다 가 2121명(47.5%), ⑤ 매우 많이 느낀다 가 477명(10.7%)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주관적 행복감은 ① 매우 불행하다 가 173명(3.8%), ② 불행하다 가 544명(12.1%) ③ 보통이다 가 1948명(43.2%), ④ 행복하다 가 1645명(36.5%), ⑤ 매우 행복하다 가 195명(4.3%)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 우울감 인지에서는 ① 없다 가 3591명(82.0%), ② 있다 가 786명

(18.0%)로 나타났으며, 네 번째 일상생활 만족도에서는 ① 매우 불만족한다' 가 65명(1.4%), ② 불만족한다' 가 502명(11.1%), ③ 보통이다' 가 2157명(47.8%), ④ 만족한다' 가 1716명(38.1%), ⑤ 매우 만족한다' 가 68명(1.5%)로 나타났다.

네 번째 요인인 장애 및 건강요인에서는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 운동여부, 규칙적인 식사여부, 음주여부, 흡연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첫 번째 장애정도에서는 ① 경중 이 3100명(67.7%), ② 중중 이 1477명(32.3%)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주관적 건강상태는 ① 매우 불만족 이 324명(7.4%)으로, ② 불만족 이 939명(21.3%)으로, ③ 보통 이 1390명(31.6%)으로, ④ 만족 이 1497명(34%)으로, ⑤ 매우 만족 이 251명(5.7%)이며, 세 번째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는 '① 없다' 가 1701명(53.5%), ① 있다' 가 1481명(46.5%)로 나타났으며, 네 번째 운동여부는 '① 하지 않는다' 가 2378명(53.9%)으로, ① 한다' 가 2035명(46.1%)으로 나타났으며, 다섯 번째 규칙적인 식사여부는 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에서 256명(5.7%), ② 가끔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에서 1428명(31.8%), ③ 일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 에서 2812명(62.5%)으로 산출되었고, 여섯 번째 음주여부는 '① 마시지 않는다' 에서 2647명(58.5%), ① 마신다' 에서 1876명(41.5%)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일곱 번째 흡연여부에서는 '① 피우지 않는다' 에서 3517명(76.8%), ① 피운다' 에서 1011명(22.3%)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변수	범주	M±SD	빈도(%)	
인 구 · 사 회 학 적 요 인	성별	① 남성	1.34±0.474	3012	65.8%
		② 여성		1565	34.2%
	연령	① 15세 이상~30세 미만	2.80±1.224	805	17.6%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1105	24.1%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1329	29.0%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880	19.2%
		⑤ 60세 이상		458	10.0%
	배우자 유무	① 없다	0.45±0.497	2527	55.2%
		① 있다		2050	44.8%
	사회활동참여	①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2.34±0.808	756	17.2%
② 참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1588		36.1%	
③ 참여하는 편이다		1869		42.5%	
④ 많이 참여한다		187		4.3%	
차별경험	① 경험한 적이 없다	1.94±0.860	1526	35.6%	
	② 드물게 경험하였다		1679	39.1%	
	③ 종종 경험하였다		894	20.8%	
	④ 항상 경험하였다		192	4.5%	
취 업	학력	① 고졸이하	0.25±0.434	3429	74.9%
		① 대졸이상		1148	25.1%

관 련 요 인	자격증	① 없다	0.28±0.451	3280	71.7%
		① 있다		1297	28.3%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① 없다	0.09±0.281	4182	91.4%
		① 있다		395	8.6%
	민간취업서비스 경험	① 없다	0.04±0.188	4399	96.1%
		① 있다		168	3.7%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① 없다	0.15±0.360	3866	84.7%	
	① 있다		699	15.3%	
정 신 적 건 강 요 인	스트레스 인지	① 전혀 느끼지 않는다	3.55±0.875	77	1.7%
		② 느끼지 않는 편이다		449	10.1%
		③ 보통이다		1339	30.0%
		④ 느끼는 편이다		2121	47.5%
		⑤ 매우 많이 느낀다		477	10.7%
	주관적 행복감	① 매우 불행하다	3.25±0.865	173	3.8%
		② 불행하다		544	12.1%
		③ 보통이다		1948	43.2%
		④ 행복하다		1645	36.5%
		⑤ 매우 행복하다		195	4.3%
	우울감 인지	① 없다	0.18±0.384	3591	82.0%
		① 있다		786	18.0%
일상생활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한다	3.27±0.733	65	1.4%	
	② 불만족한다		502	11.1%	
	③ 보통이다		2157	47.8%	
	④ 만족한다		1716	38.1%	
	⑤ 매우 만족한다		68	1.5%	
장 애 및 건 강 요 인	장애정도	① 경증	1.32±0.468	3100	67.7%
		② 중증		1477	32.3%
	주관적 건강상태	① 매우 불만족한다	3.09±1.033	324	7.4%
		② 불만족한다		939	21.3%
		③ 보통이다		1390	31.6%
		④ 만족한다		1497	34.0%
		⑤ 매우 만족한다		251	5.7%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	① 없다	0.47±0.499	1701	53.5%
		① 있다		1481	46.5%
	운동여부	① 하지 않는다	0.46±0.499	2378	53.9%
		① 한다		2035	46.1%
	규칙적인 식사여부	①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2.57±0.599	256	5.7%
		② 가끔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1428	31.8%
		③ 일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		2812	62.5%
	음주여부	① 마시지 않는다	0.41±0.493	2647	58.5%
① 마신다		1876		41.5%	
흡연여부	① 피우지 않는다	0.22±0.416	3517	77.7%	
	① 피운다		1011	22.3%	

2. 장애인의 취업

〈표 3〉에서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장애인의 취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취업과 미취업으로 측정된 취업 수준은 1점 만점 기준 평균 0.50 ± 0.500 정도로 나타났다.

〈표 3〉 장애인의 취업 수준

변 수	N	M±SD	퍼센트(%)
취업여부	미취업	2307	50.4%
	취업	2270	49.6%

3.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차이

〈표 4〉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취업관련 요인, 정신적 건강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에 따른 장애인의 취업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사회활동참여, 차별경험에서, 두 번째 취업관련 요인에서는 학력, 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민간취업서비스 경험,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에서, 세 번째 정신적 건강요인에서는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행복감, 우울감 인지,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네 번째 장애 및 건강요인에서는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 규칙적인 식사여부, 음주여부, 흡연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별에서 남성이 취업집단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높았고($x^2=200.456$, $p<.001$), 연령에서 취업집단의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자비율에서는 30세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x^2=163.325$, $p<.001$), 배우자 유무에서는 취업자 비율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x^2=428.728$, $p<.001$), 사회활동 참여에서는 활발히 참여할수록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으며($x^2=483.440$, $p<.001$), 차별경험에서는 경험하지 않을수록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으며($x^2=291.131$, $p<.001$), 학력에서는 대졸이상의 취업자 비율이 고졸이하보다 높았고($x^2=245.276$, $p<.001$), 자격에서는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취업자 비율이 높았고($x^2=341.633$, $p<.001$), 공공취업서비스 경험($x^2=48.422$, $p<.001$), 민간취업서비스 경험($x^2=19.093$, $p<.001$),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x^2=235.786$, $p<.001$)에서는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취업자 비율이 높았고, 스트레스 인지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x^2=30.587$, $p<.001$),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대체적으로 행복할수록 높은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x^2=324.515$, $p<.001$), 우울감 인지에서는 없는 경우가 높은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x^2=159.087$, $p<.001$),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는 대체적으로 만족할수록 높은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x^2=508.137$, $p<.001$), 장애정도에서는 경증인 경우 높은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x^2=408.273$, $p<.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을수록 높은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x^2=338.635$, $p<.001$),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에서는 없을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으며($x^2=132.505$, $p<.001$), 규칙적인 식사여부는 일정할 때 가장 높은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x^2=11.822$, $p<.001$), 음주여부와 흡연여부에서는 음주하는 경우에($x^2=516.962$, $p<.001$) 흡연하는 경우에($x^2=132.898$, $p<.001$) 높은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취업여부에 따른 장애인 집단 차이

변인	변수	범주	미취업자	취업자	x^2
인구·사회학적요인	성별	① 남성	1291(42.9%)	1721(57.1%)	200.456***
		② 여성	1016(64.9%)	549(35.1%)	
	연령	① 15세 이상~30세 미만	532(66.1%)	273(33.9%)	163.325***
		② 30세 이상~40세 미만	463(41.9%)	642(58.1%)	
		③ 40세 이상~50세 미만	564(42.4%)	765(57.6%)	
		④ 50세 이상~60세 미만	479(54.4%)	401(45.6%)	
		⑤ 60세 이상	269(58.7%)	189(41.3%)	
	배우자 유무	① 없음	1622(64.2%)	905(35.8%)	428.728***
		① 있음	685(33.4%)	1365(66.6%)	
	사회활동참여	① 전혀 참여하지 못함	600(79.4%)	156(20.6%)	483.440***
		② 참여하지 못하는 편	899(56.6%)	689(43.4%)	
		③ 참여하는 편	693(37.1%)	1176(62.9%)	
		④ 많이 참여함	36(19.3%)	151(80.7%)	
	차별경험	① 경험한 적이 없음	547(35.8%)	979(64.2%)	291.131***
		② 드물게 경험	889(52.9%)	790(47.1%)	
		③ 종종 경험	592(66.2%)	302(33.8%)	
④ 항상 경험		154(80.2%)	38(19.8%)		
학력	① 고졸이하	1958(57.1%)	1471(42.9%)	245.276***	
	① 대졸이상	349(30.4%)	799(69.6%)		
취업관련요인	자격증	① 없음	1935(59.0%)	1345(41.0%)	341.633***
		① 있음	372(28.7%)	925(71.3%)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① 없음	2174(52.0%)	2008(48.0%)	48.422***	
	① 있음	133(33.7%)	262(66.3%)		
민간취업서비스 경험	① 없음	2248(51.1%)	2151(48.9%)	19.093***	
	① 있음	57(33.9%)	111(66.1%)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① 없음	2138(55.3%)	1728(44.7%)	235.786***	
	① 있음	166(23.7%)	533(76.3%)		
정신적건강요인	스트레스 인지	① 전혀 느끼지 않음	52(67.5%)	25(32.5%)	30.587***
		② 느끼지 않는 편	227(50.6%)	222(49.4%)	
		③ 보통	644(48.1%)	695(51.9%)	
		④ 느끼는 편	1051(49.6%)	1070(50.4%)	
		⑤ 매우 많이 느낌	287(60.2%)	190(39.8%)	
주관적 행복감	① 매우 불행	147(85.0%)	26(15.0%)	324.515***	
	② 불행	386(71.0%)	158(29.0%)		

장애 및 건강요인	우울감 인지	③ 보통	1056(54.2%)	892(45.8%)	159.087***
		④ 행복	601(36.5%)	1044(63.5%)	
		⑤ 매우 행복	74(37.9%)	121(62.1%)	
	일상생활 만족도	① 없음	1653(46.0%)	1938(54.0%)	508.137***
		① 있음	557(70.9%)	229(29.1%)	
		① 매우 불만족	62(95.4%)	3(4.6%)	
		② 불만족	414(82.5%)	88(17.5%)	
		③ 보통	1209(56.1%)	948(43.9%)	
	장애정도	④ 만족	561(32.7%)	1155(67.3%)	408.273***
		⑤ 매우 만족	26(36.3%)	44(64.7%)	
	주관적 건강상태	① 경증	1243(40.1%)	1857(59.9%)	338.635***
		② 중증	1064(72%)	413(28.0%)	
		① 매우 불만족	269(83.0%)	55(17.0%)	
		② 불만족	609(64.9%)	330(35.1%)	
		③ 보통	696(50.1%)	694(49.9%)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	④ 만족	558(37.3%)	939(62.7%)	132.505***	
	⑤ 매우 만족	92(36.7%)	159(63.3%)		
운동여부	① 없음	838(49.3%)	863(50.7%)	0.893	
	① 있음	1028(69.4%)	453(30.6%)		
규칙적인 식사여부	① 하지 않음	1220(51.3%)	1158(48.7%)	11.822**	
	① 함	1015(49.9%)	1020(50.1%)		
	① 불규칙	136(53.1%)	120(46.9%)		
음주여부	② 가끔 불규칙	771(54.0%)	657(46.0%)	516.962***	
	③ 일정	1366(48.6%)	1446(51.4%)		
	① 금주	1711(64.6%)	936(35.4%)		
흡연여부	① 음주	569(30.3%)	1307(69.7%)	132.898***	
	① 금연	1934(55.0%)	1583(45.0%)		
		① 흡연	348(34.4%)	663(65.6%)	

*p<.05, **p<.01, ***p<.001

4.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5>와 같다. 모형적합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Model $X^2=1145.32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4.7%로 나타났다. 관측빈도와 예측빈도의 차이에 대한 Hosmer-Lemeshow 검정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X^2=11.913$, $p=.155$) 본 모형은 실제 자료와 잘 부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성별($B=-.653$, $p<.001$), 배우자 유무($B=.855$, $p<.001$), 사회활동참여($B=.306$, $p<.001$), 학력($B=.579$, $p<.001$), 자격증($B=.649$, $p<.001$), 공공취업서비스 경험($B=.896$, $p<.001$), 민간취업서비스 경험($B=-.835$, $p<.01$),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B=1.207$, $p<.001$), 우울감 인지($B=-.320$, $p<.05$), 일상생활 만족도($B=.421$, $p<.001$), 장애정도($B=-.531$, $p<.001$), 주관적 건

강상태(B=.283, $p<.001$),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B=-.346, $p<.01$), 운동여부(B=-.413, $p<.001$), 음주여부(B=.88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47.9%($.479=1-.521$) 더 낮으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135.1%($1.351=2.351-1$) 더 높으며,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한 단계별로 35.8%($.358=1.358-1$) 더 높으며,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이하보다 78.4%($.784=1.784-1$) 더 높으며,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91.3%($.913=1.913-1$) 더 높으며,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44.9%($1.449=2.449-1$) 더 높으며, 민간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56.6%($.556=1-.434$) 더 낮으며,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34.4%($2.344=3.344-1$) 더 높으며, 우울감 인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7.4%($.274=1-0.726$) 더 낮으며,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단계별로 52.3%($.523=1.523-1$) 더 높으며,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 경증인 경우보다 41.2%($.412=1-0.588$) 더 낮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단계별로 32.7%($.327=1.327-1$) 더 높으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9.2%($.292=1-0.708$) 더 낮으며, 운동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33.8%($.338=1-0.662$) 더 낮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142%($1.420=2.420-1$) 더 취업할 승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구분		Model				
		B	S.E.	Wals	OR	p
인구사회 학적요인	성별	-.653***	.109	36,107	.521	.000
	연령	-.073	.045	2,666	.930	.102
	배우자 유무	.855***	.111	58,998	2,351	.000
	사회활동참여	.306***	.072	18,164	1,358	.000
취업관련 요인	차별경험	-.094	.063	2,205	.911	.138
	학력	.579***	.123	22,230	1,784	.000
	자격증	.649***	.118	30,119	1,913	.000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896***	.182	24,310	2,449	.000
	민간취업서비스 경험	-.835**	.285	8,611	.434	.003
정신적 건강요인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1.207***	.150	64,437	3,344	.000
	스트레스 인지	.110	.064	2,994	1,116	.084
	주관적 행복감	.119	.077	2,419	1,127	.120
	우울감 인지	-.320*	.147	4,756	.726	.029
장애 및 건강요인	일상생활 만족도	.421***	.092	20,729	1,523	.000
	장애정도	-.531***	.112	22,350	.588	.000
	주관적 건강상태	.283***	.058	23,931	1,327	.000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	-.346**	.102	11,387	.708	.001

운동여부	-.413***	.098	17.625	.662	.000
규칙적인 식사여부	.085	.085	1.000	1.088	.317
음주여부	.884***	.111	63.015	2.420	.000
흡연여부	.096	.140	.473	1.101	.492
상수	-2.749	.592	21.539	.064	.000
Model X ²			1145.328 (21)***		
-2 LogLikelihood			2706.178		
Nagelkerke R ²			.447		
Hosmer-Lemeshow X ²			11.913(<i>p</i> =.155)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취업관련 요인, 정신적 건강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이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자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장애인의 취업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취업관련 요인, 정신적 건강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B*=-.653, *p*<.001), 배우자 유무(*B*=.855, *p*<.001), 사회활동참여(*B*=.306, *p*<.001)이 장애인의 취업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47.9%(*CI* 479=1-521) 더 취업할 확률이 낮으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135.1%(*CI* 1.351=2.351-1) 더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사회활동참여가 활발한 경우에 단계별로 35.8%(*CI* .358=1.358-1) 더 취업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도 여성의 취업 기회를 증진시켜야 하며,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다르지만 같은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취업관련 요인에서는 학력(*B*=.579, *p*<.001), 자격증(*B*=.649, *p*<.001), 공공취업서비스 경험(*B*=.896, *p*<.001), 민간취업서비스 경험(*B*=-.835, *p*<.01),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B*=1.207, *p*<.001)이 장애인의 취업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졸이상인 경우가 고졸이하보다 78.4%(*CI* .784=1.784-1) 더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91.3%(*CI* .913=1.913-1) 더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44.9%(*CI* 1.449=2.449-1) 더 취업할 확률이 높으며, 민간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

는 경우보다 56.6%(,556=1.434) 더 낮으며,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34.4%(2,344=3.344-1) 더 취업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에게 대학교 이상의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관련교육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취업알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은 도시 내 대학과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서 대학기관내 공공기관 내 장애인 이동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도시 내 장애인 이동 및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정신적 건강요인에서는 우울감 인지($B=-.320, p<.05$), 일상생활 만족도($B=.421, p<.001$)가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감 인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7.4%(,274=1-0.726) 더 취업여부가 낮으며, 일상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단계별로 152.3%(,523=1.523-1) 더 장애인의 취업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전반적으로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장애 및 건강요인에 있어서 장애정도($B=-.531, p<.001$), 주관적 건강상태($B=.283, p<.001$),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B=.346, p<.01$), 운동여부($B=.413, p<.001$), 음주여부($B=.884, p<.001$)가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력을 가지며,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 경증인 경우보다 41.2%(,412=1-0.588) 더 취업여부정도가 낮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할수록 단계별로 32.7%(,327=1.327-1) 더 취업여부정도가 높으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29.2%(,292=1-0.708) 더 낮으며, 운동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33.8%(,338=1-0.662) 더 낮으며, 음주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142%(1,420=2,420-1) 더 장애인의 취업여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앞의 내용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도시에서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이 지내는데 필요한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동시에 장애인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같은 도시에 모여 사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친화적인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장애인이 자발적인 삶을 지향하게 하고 취업에 적극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는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들의 취업율을 높이는데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한 요인 이외에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인정한다. 또한 많은 변수를 측정함에 단일 질문을 활용하여 측정상의 오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인 종단적인 성격의 패널 자료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자료 수집에 있어서 설문내용과 형식상에서 조정하여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인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도시의 필요성과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향후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후 장애인의 자발적인 삶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인 취업을 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옥·정민아(2018).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70(3), 51-79.
- 김도희(2018).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월간 복지동향**, 236, 52-56.
- 김정아·나운환·김지민(2013).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321-338.
- 노컷뉴스(2016).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 교회의 역할은 무엇?
- 박주영(2018). 청년층 여성장애인 고용특성과 취업 영향요인. **장애와 고용**, 28(4), 37-65.
- 양정빈(2015).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5(2), 226-253.
- 임소연(2014).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진보평론**, 59, 268-289.
- 윤희정·신자은(2015).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35(4), 432-461.
- 정병오(2010).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행정총론**, 20(2), 143-174.
- 웰페어뉴스(2014). 응답하라, 서울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토론문]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토론

이미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외래교수)

1.

장애인 복지의 방향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나아간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며 이것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립생활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탈시설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탈시설화를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립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비와 같은 소비 문제가 있기에 당연히 소득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소득원은 취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립생활을 한다는 전제하에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불쌍하다는 인식이나 기피하려는 인식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취업에 대한 것 외에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방향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고용률에서도 전체인구의 고용률은 69.9%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49.0%인 것과 비교하여 장애인

의 고용률이 낮는데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센터 등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업재활센터 등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과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참고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장애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과 같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장애유형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다를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마사지 관련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장애유형에 따라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장애유형에 따라 취업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도 추가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취업의 문제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인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일회적인 연구가 아니라 연속적인 연구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닌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술연구가 연계되어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론**

: ‘성장희구의 정치’와 한국의 복지체제



한국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 가을 학술대회

- 발표자 : 박 보 영
- 소 속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일 자 : 2019. 10. 26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 B106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Contents

- 1 왜 역사적 접근법을 취하는가?
- 2 복지국가 연구와 역사적 제도주의
- 3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복지체제
- 4 한국 복지국가의 변용 :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복지체제
- 5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 ‘잠정적 유토피아’를 찾아서

2019-10-26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2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1. 왜 역사적 접근법을 취하는가?

- 역사를 다루는 것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현재'史**임.
-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근원적 특성(성격)'을 파악할 수 있음.**
 - 사물의 근원적 특성을 알아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며, 변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음.
- **'한국적' 복지이론의 발전이 필요함.**
 -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리 현실에 기반한 이론'이 필요함.
 - 서구의 복지이론(특히 복지국가 유형론)은 그들의 문제를 연구한 결과물임. 자칫하면 우리의 문제를 서구의 시각에서 박제화시킬 우려가 있음.
 - 우리 역사를 통해 우리 현실을 진단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문제의 '특수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음.

2019-10-26
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
3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2. 복지국가 연구와 역사적 제도주의

- 복지국가 연구에서 **'역사적 제도주의'가 유용한 이유**
 -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복지국가는 자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발전 경로를 밟고 있음.
 - 왜냐하면 각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정치·사회 구조 및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역사적 제도주의 개관**
 - **제도란?** :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공식적 규칙, 절차, 표준관행 등.
 - **제도(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 제도)**는 행위자들의 선호나 이익을 **형성하고 제약함.**
 예) '기존 제도'가 정부의 능력을 제약하고 정치경제적 행위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제도는 **역사적 유산**으로 기능하며, 정책의 형성과 발전은 **경로의존성**을 띤.
- **역사적 제도주의가 복지국가를 분석하는 방법**
 - '정치'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형성과 전개를 분석함.
 - '국가'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아 복지정책의 형성과 전개를 분석함.

2019-10-26
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
4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2. 복지국가 연구와 역사적 제도주의

〈그림〉 역사적 제도주의의 도해

2019-10-26
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
5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3.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체제의 형성과 변용
 - 박정희 정부는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체제'를 수립하고 '성장제일주의'를 정책결정의 지배적 가치로 삼음.
 - 전두환 정부는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체제를 계승하였음. 다만, '경제안정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시도함.
 - 노태우 정부는 '연성화된' 개발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향해화함.
 - 김영삼 정부는 한국의 발전주의 전략을 수정함. 즉 개발독재를 '신자유주의'(세계화 프로젝트)로 대체함.

-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복지체제
 - 정치적 정당성이 약한 집권층이 '성장제일주의'를 내면화한 기술관료집단을 앞세워 국가복지의 확대를 유예시킴.
 - 낙수효과를 통한 복지욕구의 해결.
 -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적 보수주의 견지.(※민간자원의 최대 활용, 복지수급권을 고용 및 기여와 연계, 엄격한 자산조사)
 - 국가는 복지의 제공자보다는 '규제자'로서 기능

2019-10-26
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
6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3.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표 1〉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복지체제: 특성과 복지입법

	배경	특성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박정희 정부	• 5.16군사쿠데타 • 유신체제	권위주의적 개발독 체제 수립	신재보험 의료보험 국민복지연금(연기)	생활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전두환 정부	• 5.18광주민중항 운동	권위주의적 개발독 체제 계승	국민연금(법제정)	최저임금(법제정)	삼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대체)
노태우 정부	• 87년 6월 항쟁 • 87년 노동자대 투쟁	연성 개발독재체제, 역진적 소득분배 (기업복지 확대)	국민연금(시행) 의료보험(전국민)	최저임금(시행)	장애인복지법(대체)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김영삼 정부	• 보수 3당 합당 • OECD가입 • 노동법 개정(정 리해고, 파견근로)	한국의 발전주의 전략수정(개발독 재 → 신자유주의)	고용보험		정신보건법 공동모금회법

2019-10-26
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
7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4. 한국 복지국가의 변용

-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체제(I): 리버럴(liberal) 정부**

 -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맞아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힘썼음, 하지만 'IMF관리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화를 심화시키고 '노동의 재상품화'를 추구함. (*생산적 복지)
 - 노무현 정부는 사회양극화에 맞서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소득보장 대신 사회서비스 확충에 주력함. 이 과정에서 철저히 시장친화적 기조를 유지함.
-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체제(II): 보수정부**

 - 이명박 정부는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리버럴 정부의 복지정책을 승계하였으나, 감세와 재정적 보수주의에 입각하여 '체계적 복지축소'를 시도함.
 - 박근혜 정부는 보편복지 욕구의 분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장기적 재정절감을 위한 조치들(체계적 복지축소)을 단행함.
- **한국 복지국가의 변용: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복지체제**

 - 외환위기 이후 '심층적 신자유주의화'에 들어섰음에도, 집권층과 기술관료들의 정책목표는 여전히 '자유시장' 자체가 아니라 발전주의적인 '경제성장'에 맞춰져 있음.
 - 선별적·잔여적·역진적 사회보장제도. (*엄격한자산조사, 친족책임원칙, 정규직위주)
 - '노동의 재상품화' 추구. (*근로연계복지)
 - 복지지출의 '체계적 축소'. (*구조적·장기적 재정절감을 위한 연금개혁, 사회서비스 민영화, 민간보험 확대)

2019-10-26
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
8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4. 한국 복지국가의 변용

〈표 2〉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복지체제 : 특징과 복지입법

	배경	특성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김대중정부	• 외환위기, IMF관리체제 • 분점정부	사회보장제도 확대, 근로연계복지	건강보험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	
노무현정부	• 양극화심화 • 글로벌시장개방 • 소수파경건	GDP대비 복지지출 확대, 사회서비스 확대 및 민영화	국민연금 개혁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제정)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EITC(법제화)	
이명박정부	• 글로벌 금융위기 • 시장보수노선 (대대적 감세)	전정부 복지정책 승계, 사회서비스 민영화심화, 민간 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근로장려세제 EITC(시행)	아동양육수당(취약 계층)
박근혜정부	• 보편복지 담론 부상, 보육대란 • 반공보수노선	공무원연금개혁,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보육비용 지자체전가		기초연금(대체)	보편적보육료 지원, 보편적 아동양육수당 지급

2019-10-26
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
9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5.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 잠정적 유토피아를 찾아서

- 한국 복지국가 앞에 놓은 '삼중과제'
 - **첫째**, 한국 복지국가의 주된 특질은 '성장회구의 정치'임. 하지만 '뉴노멀'시대(저성장·저금리)에 성장회구의 정치가 잘 작동하기는 어려움.
 - **둘째**, DNA(Data, Network, AI)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산업화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노동-자본 관계)를 예고하고 있음. 이같은 변화에 조응하는 복지체제의 수립이 요구됨. (예) 깃(Gig) 경제, 플랫폼 노동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복지체제
 - **셋째**, 사회불평등에 의한 '계층의 고착화'(*부의 세습 → 기회의 세습)가 심화되고 있음.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체제의 수립이 요구됨.
- '잠정적 유토피아'를 찾아서
 - 인류는 항상 **잠정적 유토피아(대안적 사회시스템)**를 찾아왔음. 사실 서구의 복지국가도 잠정적 유토피아로 선택된 것임.
 -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잠정적 유토피아를 찾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을 거듭할 필요가 있음. 그래야 '역사적 시민권'을 획득한 잠정적 유토피아가 출현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공공성·연대·공생 등 사회적 가치가 잠정적 유토피아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2019-10-26
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
10

한국
사회적질학회
Korean
Association on
Social Quality

감사합니다

2019-10-26 한사질 2019 가을학술대회 11

[토론문]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토론

강미희

(백석예술대학교 강사)

에스핑 엔더스(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나, 퍼니스와 킬턴(Furniss and Tilton)의 국가유형론에 의한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등 이 모든 분류는 각 국가가 갖는 역사나 그 역사에 의한 사회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국가의 복지 형태 혹은 현황 등을 파악할 때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이 후에 발생할 일련의 사건들이 초래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y)을 강조합니다. 즉 정부의 제도적 설계(정치적 선택)로 인한 차후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발표자가 IMF 이전과 이후를 분리하고, 그 시간적 기점을 전후로 정권이 한국의 복지체제 및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복지 제도 및 법률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역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려할 때, IMF 이전까지는 복지정책이라고 특정할만한 국가정책이 매우 미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F를 기점으로 복지관련 이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복지예산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한

국정부의 복지제도 및 복지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발표자의 관점과 분석에 일정부분 동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복지국가를 살펴볼 때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특질을 짚어내고 있는 발표자의 관점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표문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 발표문을 기반으로 향후 연구를 전개할 발표자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 질문거리

- 1) 발표문을 보면서 크게 아쉬웠던 점은 현 정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이라는 분석틀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역대 정권들에서 추진했던 복지 제도나 정책들은 분석하면서 현 정권의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 정권들의 케이스는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분석이 빠졌다는 것은 다른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현 정권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중반기를 지나고 있고, 발표문이 완성된 형태의 논문이 발제문의 성격을 갖는 발표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충분히 현 정권의 복지 제도나 정책들도 같이 분석해 주었으면 합니다.
- 2) 발표문은 시작부터 분석까지 정부차원의 국가제도 혹은 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시스템이나 그에 따른 제도·정책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발표문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일이나 노력들이 매우 일반론적이고 거시적으로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 이전의 내용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잠정적 유토피야’ 와 그에 대한 한국사회 전반(시민사회)의 노력이 제시되어 있어 다소 맥락이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서론 및 본론과 결론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결론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면 앞서서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언급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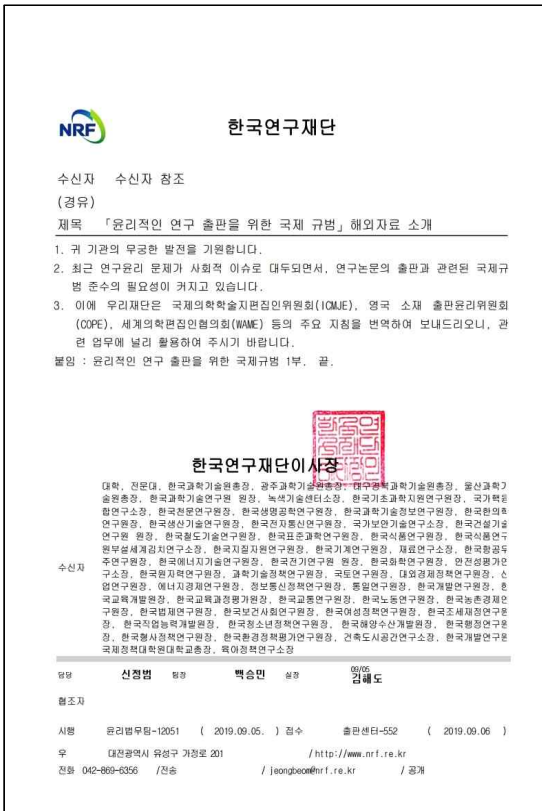
제2부 워크숍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년 가을 학술대회(2019.10.26)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1)



NRF 한국연구재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해외자료 소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연구윤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연구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준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재단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QWiE), 영국 소재 출판윤리위원회(COPE),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AME) 등의 주요 지침을 번역하여 보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규범 1부, 끝.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학, 전문대,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광주과학기술원총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총장, 울산과학기술원총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녹색기술센터소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혁신융합연구소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장, 한국지질지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장, 한국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정책개발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한국개발연구원, 국립정책대학원대학교총장, 육이형연구소장

수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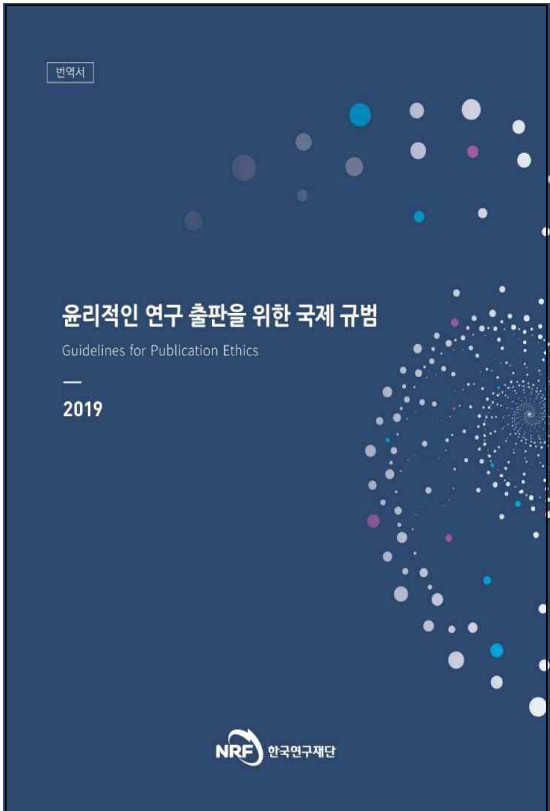
담당 **신정범** 팀장 **박승민** 실장 **005 김태도**

참조자

사항 관리담당-12051 (2019.09.05.) 접수 출판센터-552 (2019.09.06)

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경로 201 / http://www.nrf.re.kr

전화 042-869-5356 / 전송 / jseong@nrf.re.kr / 공계



번역서

윤리적인 연구 출판을 위한 국제 규범

Guidelines for Publication Ethics

2019

NRF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년 가을 학술대회(2019.10.26)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목차	
<i>Contents</i> 목차	
1장.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CMJE) 권고	9
a. 의학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연구의 수행, 보고, 편집과 출판에 대한 권고안	11
<i>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i>	
2장. 일반 원칙	55
a. 책임있는 연구 출판 : 편집인을 위한 국제 표준	57
<i>Responsible research publ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i>	
b. 책임있는 연구 출판 : 저자를 위한 국제 표준	68
<i>Responsible research public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hors</i>	
c.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모범적 실천	75
<i>Principles of Best Practice and Transparency in Scholarly Publishing</i>	
d. COPE의 핵심 활동	81
<i>Our Core Practice</i>	
e. COPE 핵심 활동을 준수하기 위한 편집국 조직 구성 지침 : 흐름도	84
<i>Suggested Guide for Approaching Organisation of the Editorial Office to Comply with COPE's Core Practices: Flowchart (2019)</i>	
3장. 저자, 기여자, 심사자, 편집인, 발행인, 학술지 소유주의 역할과 책임	87
a. 저자됨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COPE 토론 문서	89
<i>What constitutes authorship? COPE Discussion Document</i>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 규정 Guidelines for Publication Ethics	
b. 저자됨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97
<i>How to Recognise Potential Authorship Problems : Flowchart (2018)</i>	
c. 약탈적 혹은 유사 학술지의 확인	99
<i>Identifying predatory or pseudo-journals</i>	
d. 전문가 심사 의학 학술지에서의 이해상충	111
<i>Conflict of Interest in Peer-Reviewed Medical Journals</i>	
e. 경쟁적 이해들의 관리에 관한 토론/지침 문서	118
<i>Discussion/guidance document on handling competing interests</i>	
f. 이해상충을 공개하지 않았음이 의심될 경우	122
<i>What to do if undisclosed conflict of interest (CoI) was suspected : Flowchart (2015)</i>	
g. 신임 편집인을 위한 윤리적 편집에 대한 짧은 안내서	125
<i>A Short Guide to Ethical Editing for New Editors</i>	
h. 전문가 심사자를 위한 COPE 윤리 지침	135
<i>COPE Ethical Guidelines for Peer Reviewers</i>	
i. 심사자가 저자의 개념이나 데이터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흐름도	143
<i>What to do if you suspect a reviewer has appropriated an author's ideas or data: Flowchart</i>	
4장. 학술지 간행과 관련된 편집과 출판 상의 문제들	145
a. 저자됨의 분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신진 연구자를 위한 지침	147
<i>How to handle authorship disputes: a guide for new researchers</i>	
b. 저자됨의 변경과 저자됨의 문제들, 유령 저자, 손님 저자, 선물 저자가 의심될 경우 : 흐름도	155
<i>Changes in authorship, authorship problems, and suspected ghost, guest or gift authorship: Flowcharts (2015)</i>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년 가을 학술대회(2019.10.26)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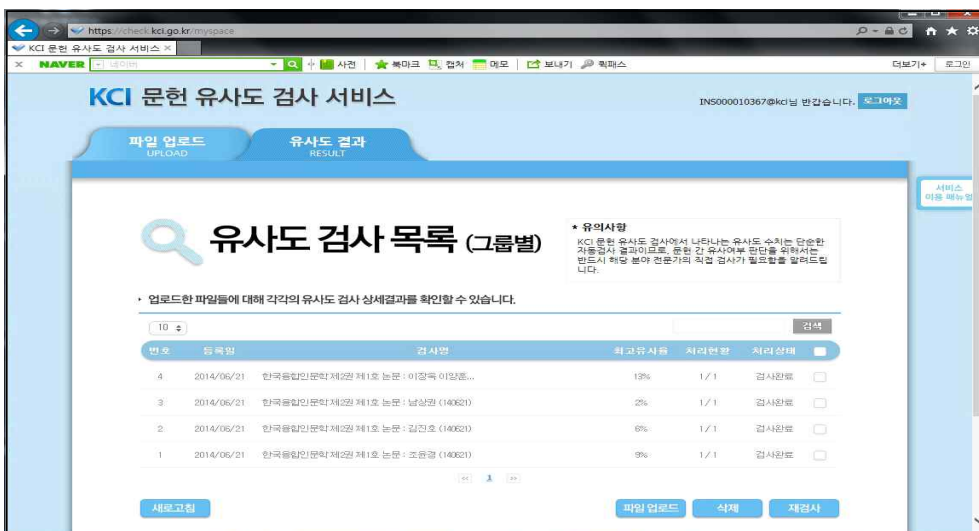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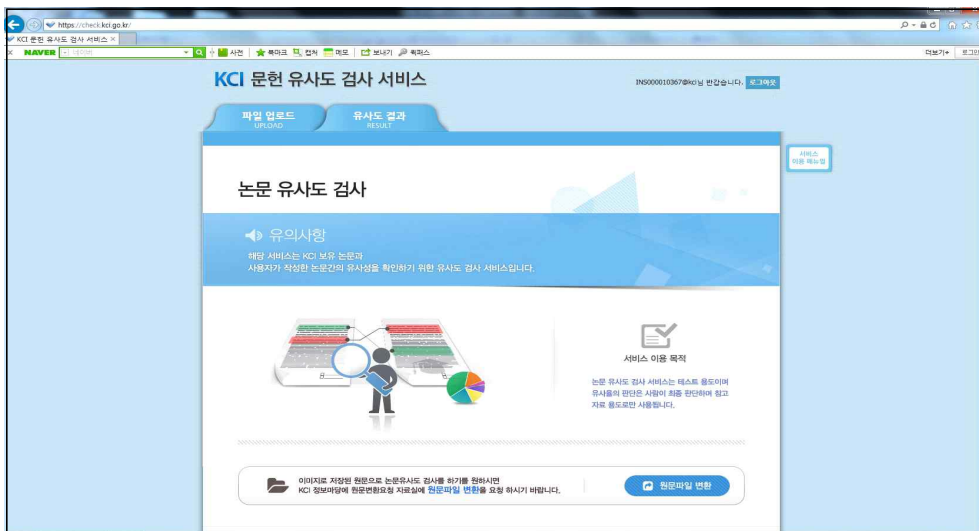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3)

목차	
c. 연구 진실성 사례에 관한 연구 기관과 학술지 간의 협력 : COPE 지침	163
<i>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and journals on research integrity cases: guidance from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i>	
d. 잠재적 부정행위에 관한 편집장 간의 정보 공유	175
<i>Sharing of Information Among Editors-in-Chief Regarding Possible Misconduct</i>	
e. 투고 원고에서 윤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 흐름도	178
<i>What to do if you suspect an ethical problem with a submitted manuscript: Flowchart (2015)</i>	
f. 편집인은 표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COPE 토론 문서	180
<i>How should editors respond to plagiarism? : COPE Discussion Document</i>	
g. 표절, 데이터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 흐름도	197
<i>What to do if you suspect plagiarism and fabricated data: Flowchart (2015)</i>	
h. 텍스트 재활용 지침	202
<i>Text Recycling Guidelines</i>	
i. 중복(이중)출판이 의심될 경우 : 흐름도	208
<i>What to do if you suspect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Flowchart (2015)</i>	
j. 익명 제보자에 대한 대응 : COPE 토론 문서	211
<i>Responding to anonymous whistle blowers: COPE Discussion Document</i>	
k. 여러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의 처리 : COPE 토론 문서	215
<i>Addressing ethics complaints from complainants who submit multiple issues: COPE Discussion Document</i>	
l. 제보자에 대한 대응 : 흐름도	219
<i>How to respond to whistle blowers: Flowchart (2015)</i>	
m. 논문 철회 지침	222
<i>Retraction Guidelines</i>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국제 규정 Guidelines for Publication Ethics	
5장. 기타 주제	229
a. 의학 증례 보고 출판에서 동의를 보장하는 학술지의 모범적인 관례 : COPE의 지침	231
<i>Journals' Best Practices for Ensuring Consent for Publishing Medical Case Reports: guidance from COPE</i>	
b. COPE 토론 문서 : 전문가 심사는 누가 "소유"하는가?	236
<i>Who "owns" peer reviews?</i>	
c. 학위논문 출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모범적인 관례에 대한 토론 문서	245
<i>Discussion document on best practice for issues around theses publishing</i>	
용어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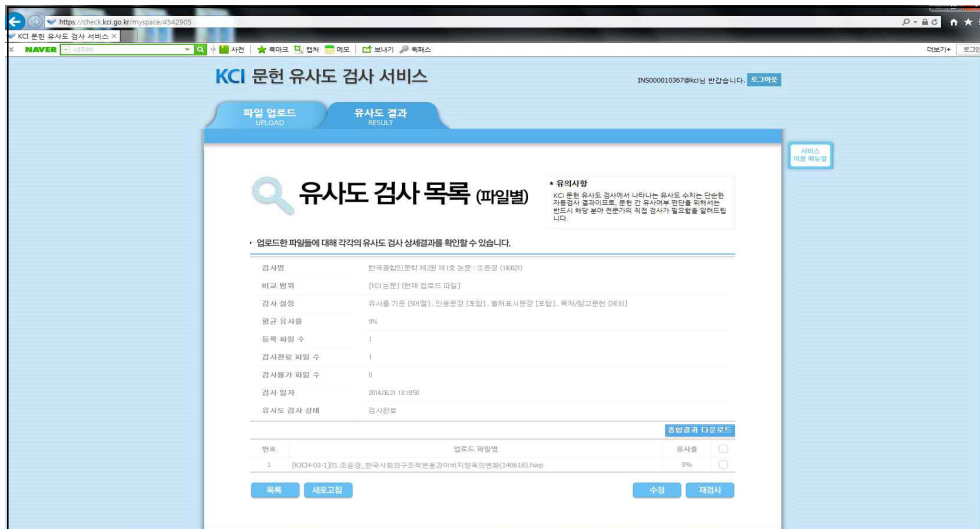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년 가을 학술대회(2019.10.26)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년 가을 학술대회(2019.10.26)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년 가을 학술대회(2019.10.26)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2018 인용지수> 안내 (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검색 항목 전체 : 한국종합 (5건)

※ KCI 인용정보는 2004년 이후의 논문에 대한 피인용연할(총 피인용횟수 및 H지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구자 인용정보 해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CI 데이터 범위)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재단등록(후보) 학술지 논문

※ WOS-KCI 통합 인용지수는 WOS에 등재된 학술지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인용지수 계산일 : 2019-09-30	통시적 지남	인용지수	2년 분	3년 분	4년 분	5년 분		
□ NO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대분류	KCI IF (2년)	중심성지수 (3년)	특사성 지수	자기인용비율 (2년)	WOS-KCI 통합 IF (3년)
□ 1	한국종합신문지	한국종합신문	복합학	1.64	1.409	0.61	36.47	-
□ 2	한국종합과학지	한국종합과학	예·실용학	0.86	0.642	0.9	84.17	-
□ 3	한국종합인문학	한국종합인문학	복합학	0.65	1.393	0.24	17.65	-
□ 4	종합보안 논문지	한국종합보안학회	공학	0.42	0.45	0.12	39.44	-
□ 5	종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한국종합신호처리학회	공학	0.15	0.346	0.07	100.00	-

공지사항

제목: [수정 제공지] KCI 2018 인용지수, 제공 안내

주요내용 | KCI 관리자(kciadmin@nrf.ac.kr) | 2019-07-04 | 조회수:1,498

[수정 제공지 안내]

2019년 7월 4일 제공된 KCI 2018 인용지수에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 제공지입니다.

- 수정 내역
 - (통시적 지남) 피인용횟수
 - (통시적 지남) 자기인용비율
 - ※ 기 제공된 통시적 KCI 인용지수(IF 등)는 정상적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아울러, KCI 홈페이지 '인용정보검색' 메뉴에서 제공되는 모든 인용정보도 정상적으로 산출된 수치 값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총괄팀입니다.

재단 등록(후보) 학술지 및 논문에 대한 인용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KCI 2018 인용지수*를 신규로 산출하여 통시적 지남과 같이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KCI 2018 인용지수*는 2016년과 2017년에 발간된 논문이 2018년에 피인용된 횟수를 통해 산출됩니다. 각 인용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통시적 지남] KCI 인용지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CI 2018 인용지수*는 KCI 홈페이지(http://www.kci.go.kr) '인용정보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4일 중 보편 예정) 인용지수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kciadmin@nrf.ac.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적질학회 2019년 가을 학술대회(2019.10.26)
포용적 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민과 성찰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2018 인용지수〉 안내 (2)


「 학술·연구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연구지원 글로벌 리더 」
한국연구재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한국연구재단 「KCI 2018 인용지수」 제공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7월 3일 기준, 「KCI 2018 인용지수」를 신규로 산출하여 붙임과 같이 제공하였으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3. 「KCI 2018 인용지수」는 KCI 홈페이지(<https://www.kci.go.kr>) <인용정보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kciadmin@nrf.re.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KCI 인용지수 설명 1부.
 2. 인문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3. 사회과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4. 자연과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5. 공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6. 의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7. 농수해양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8. 예술체육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9. 복합학 분야 KCI 2018 인용지수 1부. 끝.

한국연구재단 이 사 장

수신자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발행기관, 기타

담당	이유경	팀장	김소형	실장	황기환	본부장	김동원
----	------------	----	------------	----	------------	-----	------------

별 조 지

시 통 학술진흥총괄팀-12160 (2019.07.04) 집 수 ()
 주 소 (우)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정로 20 / <http://www.nrf.re.kr>
 전 화 042-869-6386 전 송 / yookyoung@nrf.re.kr / 비공개(5)
 「 한국연구재단의 핵심가치 : 창의성 · 개방성 · 책무성 · 특별성 」